

다석(多夕) 유영모의 동양적 기독교론에서 종교융합주의 엿보기

이상엽
(협성대 초빙교수)

1. 동서사상을 아우른 창조적 생명 철학자 유영모의 사상

다석 유영모(1890-1981)선생은 우리 근·현대사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 이 순간의 삶에서 처음과 끝이고, 영원과 절대인 하느님을 모시고 이웃과 더불어 전체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 했다. 그의 사상은 우리 전통사상과 현대 서구사상의 결합으로서 함석헌의 씨알사상,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사상, 토착화신학, 생명철학의 선구자적 역할이 되고 있다. 그는 신학과 철학, 과학과 윤리를 통하고 몸과 마음, 이성과 영혼을 통전(通典)한다. 우리 사회는 동양의 전통종교문화를 지니면서도 기독교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을 경험하고, 오랜 식민지생활, 남북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도 급격한 산업화와 세계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상계는 해방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면서 닦아 낸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민족사상과 단절됨으로써 그 뿌리를 잃고 말았다. 이제 우리 근·현대사의 값진 경험으로부터 인문학적 부흥이 일어나고 동서 문명을 아우르며 세계평화시대를 여는 철학이 나와야 할 때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과 세계개방성, 평화지향성은 세계화시대에 상생과 평화의 철학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유영모는 우리 고유의 천지인(天地人) 합일(合一) 사상, 기독교 사상 그리고 '생각'을 중심에 놓는 서구근대철학을 결합함으로써 동서고금을 통합하는 현대적 사상을 형성했다. 그의 사상은 두루 통하는 종합적인 '한국사상'으로 우리 사상의 뿌리를 밝혀 준다. 동서 문화를 아우르는 그의 철학은 지구화와 생태학적 위기속에서 상생평화의 세계를 지향해야 하는 인류에게 자극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는 생각을 '신과의 소통과 연락'(念在神在)으로 보았다. 그에게 신, 하느님은 '절대하나'이고 '전체하나'이다. 유영모 사상의 핵심과 목적은 '하나'를 추구하는 데 있다. 그는 단일한 허공, 하나의 세계는 인식론적으로 "깜깜한 세계"라고 했고 "하나"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고 했다. 다석에게서 생각은 앎(지식)을 넘어서 모름에 이르는 것이다. 그는 '모름직이'란 말을 '모름을 지킴'으로 풀이한다. "사람은 모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지켜야 아는 것,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다석 유영모』 190~91쪽, '7.생각: 존재의 끝을 불사르며 위로 오르다' 중에서)

다석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석 유영모』는 한국 근·현대사의 철학사상가 유영모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전통사상과 서구사상을 결합한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생명철학의 선구자이자 한국적 사상을 만들어 낸 유영모의 생애와 사상의 배경을 알 수 있다. 『다석 유영모』는 유영모사상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의 사상이 철학계에서 외면당하는 이유, 삶과 사상을 네시기로 구분해 설명한다. 또한 삶과 현실의 문제인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과 생명과 정신을 완성한 밥 철학과 우리말과 글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소개한다. 신앙체험 속에 맞게 된 기독교사상과 함께 그를 바탕으로 한 동양종교와의 사상통합을

하게 된 계기와 유영모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상생·평화·통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등도 함께 수록해 담고 있다.

유영모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고 주일이면 세 번씩이나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몇 가지 이유로 교회로부터 멀어졌다.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동생 영목의 갑작스런 죽음과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본 단재 신채호의 민족사관 등이 시차를 두고 정통신앙으로부터의 일탈을 부추겼다. 어린 시절 소학을 비롯한 유교경전을 읽고 자랐던 선생의 손에 노장(老莊)의 서적과 불교경전이 들려지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선생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 셋을 꼽으려면 톨스토이와 간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를 들 수 있다. 간디는 선생 평생의 삶의 원칙이 된 일식(一食)과 종교간 회통에 대한 감각을 일깨웠으며, 톨스토이는 서구 기독교교리를 비판할 수 있는 비정통주의의 시각을 열어주었고, 우찌무라 간조와는 후일 선을 그었으나 무교회주의 영향을 입었다. 이런 이유로 유영모를 간디주의자나 톨스토이주의자로 환원시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의 비정통적 기독교이해가 톨스토이나 간디 그리고 교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우찌무라 간조 영향 때문이란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하나 이런 식의 환원은 유영모사상의 독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비정통주의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양적, 한국적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정통 기독교의 대속(代贖)신앙을 거부한 것은 동양적 정신세계, 수행적 삶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의 비정통주의를 종교다원주의 틀로 논하는 시각도 있어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를 상호 회통시켰던 그에게서 종교다원주의가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영모는 예수만을 자신의 유일한 스승으로 고백하였다. 예수가 걸머진 십자가 도(道)를 주체적, 동양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길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는 실체론적으로 고백되지는 않았다.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의 논거 하에 예수의 성(性)이나 인간의 성(性)이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점에서 유영모의 예수는 자신 속의 절대(본성)를 깨닫고 그와 하나 된 삶을 산(십자가) 분으로 인간 모두에게 길을 가다 '길'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이다.

이런 식의 동양적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 곧 자속(自贖)의 길을 가라고 명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삶과 생각이 다를 수 없다는 동양적 사고의 열매이다. 자속을 통해 대속의 진정한 의미를 밝힌 것이 유영모의 동양적(토착적) 기독교 이해의 공헌이라 하겠다. 자속이란 통상적인 서구 기독교의 시각에선 불가능한 개념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기에 자유의지조차 긍정치 않았던 까닭이다. 하느님 은총의 결정적 계시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인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종교인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자/타력, 유/무신론 등의 범주가 사용되었고 기독교의 배타적 우월성을 말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 서구의 대속개념을 비판하는 일련의 신학자 그룹이 생겨났다. 동양적 기독교를 주창한 유영모는 말할 것 없고 그 제자 함석헌 그리고 한국 복음교회 창시자 최태용 같은 출중한 신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는 루터 종교개혁사상의 빛에서 일본적 기독교를 수립한 우찌무라 간조의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루터의 칭의론(稱義論)을 배웠고 무교회주의에 매료되었으나 그와 달리 점차 이들은 한국적(동양적) 기독교를 생각했고 하느님 영(靈)의 직접적인 역할에 주목했다. 일본적 기독교로부터의 탈주가 대속사상에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적 기독교의 독특함을 예상케 한다. 물론 이런 경향성이 한국 주류교회의 담론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미국 등지에서 시작된 역사적 예수연구의 흐름과 맞물리며 기독교운동의 새 차원을 열고 있다.

2. ‘없이 계신 하느님’의 불이(不二)적 속성과 유영모의 얼 기독교론

다석이란 ‘많은 저녁’이란 것으로서 호가 지닌 의미이다. 철학자 이기상은 다석 속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종말을 보았다. 그리하여 ‘태양(의식)을 끄라’는 말로 유영모 사상을 상징화시켰다. 이성의 틀 하에서 존재자만을 존재로 규정해온 서구 형이상학과 달리 무(無), 공(空), 즉 ‘없음’이 존재 사유의 지평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유영모의 기독교 이해는 주저함 없이 동양적 신학으로 언명될 수 있다. 사유의 동양적 지평을 통해 기독교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유영모의 하느님은 ‘없이 있는’ 분이다. ‘없이 있다’는 말은 서구논리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A \neq \bar{A}$ 의 모순을 내포한다. 하지만 유교, 불교를 막론하고 동양 논리는 이런 모순 자체를 품어 안았다. ‘태극이무극(太極而無極)’, ‘진공즉묘유(眞空卽妙有)’란 말들이 바로 그것이다. 반대의 일치(Coincidentia Oppositorum)라는 신비주의 논리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없이 계신 하느님’은 불이적 신학의 첫 번째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neq \bar{A}$ 를 가능케 한 동양적(한국적) 사유지평을 설명하는 일이다. 동양적 기독교 이해를 위해 유영모가 의존한 사유지평은 다음과 같이 약속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 샤머니즘(Shamanism)의 지평에서 생겨난 삼재론(三才論)¹⁾이 거론된다. 샤머니즘은 본래 수렵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죽은 짐승의 혼(靈)을 기리는 희생제의를 발달시켰다. 따라서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민족고유의 삼재사상은 영의 거처인 보이지 않는 하늘(天)의 세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유영모는 천지인을 계, 예, 굿이란 순수 우리말로 풀었다. ‘계’란 없음의 세계 그러나 생명의 근거가 되는 세계를 뜻한다. ‘예’란 육체, 땅(地), 죽음의 세계이다. 계와 연결된 다른 한 끝을 가리킨다. ‘굿’은 하늘이 땅에 부딪쳐 생겨난 존재로 땅에 있는 하늘이라 할 수 있다. 후일 유영모가 한글을 하늘의 계시(天文)로 보고 계소리(天), 가온소리(地) 그리고 제소리(人)를 말한 것도 이런 삼재론에 바탕을 둔 이해의 산물이다. 불교의 ‘진공묘유’와 유교의 ‘무극이태극’, ‘천명지위성’ 역시 동일한 논리로서 ‘없이 있는’ 세계를 보여준다. 불교에 있어서 진공묘유란 견성(見性)의 세계에 해당되는 말이다. 텅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는 진여(眞如)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인 것이다. 하여 견성은 현상(상대)계를 넘어선 절대적 차원, 곧 공과 무의 실재를 일컫는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인간은 탐진치(貪瞋癡)의 욕망을 벗기 어렵다. 진여인 참 나를 깨닫기 위해 이 땅에서 인간은 수행(고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부터 성불의 세계, 곧 ‘굿’의 현실태를 얻게 된다. 일체 상대계, 인과의 세계를 초극한 자유의 세계(一體無碍人)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영모는 견성, 고행 그리고 성불을 천지인의 맥락에서 이해했고 ‘없이 있는’ 세계가 불교에 있어서도 핵심인 것을 보여주었다.

1) 삼재론은 고대 동양사상에서 우주의 세 가지 근원을 뜻하는 말로, 삼재(三材), 삼극(三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천(天), 지(地), 인(人)을 가리킨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보면 괘(卦)에 6개의 효(爻)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천도(天道), 지도(地道), 인도(人道)가 있으며, 삼재(三才)를 겸하여 이를 돌로 한다. 그래서 6”이라 했다. 한국문화는 삼재론에 관해서 동양사상의 전통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무속(巫俗)에서 삼재는 영(靈)의 세계인 하늘, 육체의 세계인 땅,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영적 능력자로서의 무당, 즉 샤먼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주와 세계는 바로 이 삼자, 즉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 속에서 운행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교 역시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된다. 유영모는 유교가 조상을 숭배하는 유(有)의 차원으로 몰락한 현실을 개탄한다. 유교 역시도 ‘없이 있음’(太極而無極)을 강조하는 계시종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용(中庸)의 첫 내용,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을 들어 ‘없이 있는’ 절대와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한다. 먼저 천명지위성을 하늘이면 서도 인간 속의 참 본성, 곧 바탈(本然之性)로 풀어낸다. 솔성지위도는 종교적 수행으로서 몸성히, 마음놓기, 바탈태우, 곧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며 자신속의 천명(本性)을 일깨우라는 명령이다. 절대계에 이르기 위해 타고난 본성을 기르자는 것이다. 수도지위성은 바탈, 즉 ‘없이 있는’ 존재와 하나 된 상태로써 부자불이(父子不二)의 현실태를 지칭한다. 여기서 유영모는 유교적 효(孝)를 종교성으로 승화시킨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위한 ‘효’야말로 자신속의 바탈을 키울 수 있는 종교적 태도란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유영모는 불교, 유교를 막론하고 저마다 자기 속의 절대를 깨닫고 자신을 갈고닦아 절대존재와 하나 되는 길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그가 불교와 유교도 하늘로부터 계시 받을 것은 다 받은 종교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들 종교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있었기에 유영모는 기독교, 특히 예수를 동양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없이 있는’ 존재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본각(本覺)의 상태로서 돈오(頓悟: 문득 깨침)의 자리이며 기독교적으로는 믿음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 세계가 현실태가 되려면 지난한 점수(漸修: 점진적 깨침)의 과정, 곧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유영모의 기독교가 수행적 종교로 자리매김 되고 대속에 대해 지속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 하에서이다. 분명한 사실은 수행을 통해 도달된 세계는 그것이 성불이든 부자유친이든 간에 경험적 진리로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불이적 원리 하에 재구성된 유영모의 기독교, 곧 하느님과 예수, 성령의 이해는 다음과 같이 기존 서구신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우선 그에게 하느님은 ‘없이 있는’ 분이다. 없다는 말은 대상적, 서구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말이다. 동학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불연(不然)이다. 주객도식의 구조로서는 신(神)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영원무한하며 절대적 존재로서 우주생명이다. 그가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있는 것이다. 유영모는 염재신재(念在神在)란 말로서 하느님 존재를 설명한다. 생각, 곧 인간에게 형이상학적 욕망이 있는 것은 하느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느님을 유영모는 인간에게서 찾는다. 서구신학이 말하는 하느님의 절대 타자성 대신에 인간의 속알(얼)로서의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다. ‘없이 있는’ 이가 인간의 깊은 바탈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유영모는 중국에 이르러 하느님이 참 나임을 주장한다. 물론 하느님이 참 나(A=非A)가 되기 위해 지난한 수행이 필요하다. 양자 간의 일치는 이성적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적인 것은 ‘없이 있는’ 이가 내속에 있다는 동양적 에토스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에 대한 이해 역시 서구신학의 길과 달라진다. 여기서 예수는 백사천난(白死千難) 끝에 하느님 씨알을 깨닫고 얼 나, 곧 하느님이 된 부자불이적 존재로 급진적으로 재구성된다. 반면 오늘날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 신성화된 예수 이미지를 벗겨내듯이 유영모 역시도 역사적 예수 자체를 우리와 같은 인간(몸나)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자신 속의 하느님을 깨치고 십자가를 통해 얼나로 솟구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없이 있는’ 이와 하나(父子有親)된 존재가 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시간을 끊고 얼(하느님)로 솟구친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유영모가 일평생 스승으로 모셨던 유일한 분이었다. 유영모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자신 스스로도 믿음에 들어갔음을 고백한 오도송(悟道頌)을 지은 바 있다. 한편 유영모에게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자, 인간의 바탈이고 ‘참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과 우주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하느님 영은 한

번도 끊어져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그리스도는 전체생명이 되었고 우리 인간은 그 생명에 잇대어 사는 것이라고도 했다. 요컨대, 하느님 영은 전체로서 우주생명이고 내 속의 속알이며 상대계를 초월한 절대정신이다. 모든 인간 속에 하느님 영(바탈)이 있으며, 그를 토대로 누구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서구 다원주의 신학의 급진적 보편화(내재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본 글은 1) 매일종교신문에 실린 수암(守岩) 문윤홍·칼럼니스트의 글, 「동서사상을 아우른 ‘창조적 생명 철학·종교·사상가’ 다석 류영모: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과 2) 이정배교수(감신대)가 쓴 논문, 「다석(多夕) 학파의 기독교 이해와 한국 문화신학의 미래 - 류영모, 함석헌, 김홍호의 ‘不二의’ 신학원리에 대한 일 고찰 -」에서 류영모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다석(多夕) 유명모의 동양적 기독교론에서 종교융합주의 엿보기 논평

이창우
(주)예람 목사, 종교철학전공)

다석 유명모의 열 기독교론은 동서양을 아우르면서 종교의 융합을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없이 계신 하나님”에서 출발한다. “없이 있다”는 것은 서구적인 사상으로는 논리적 모순이나 동양에서 이런 개념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유교에서는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이고, 불교에서는 ‘태극이무극’(太極而無極), ‘진공즉묘유’(眞空卽妙有)란 말들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의 사상의 핵심은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 하나,” “전체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자속” 개념은 단지 타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대속의 보완처럼 보이며, 한글의 원리인 “천지인”은 이런 하나를 추구하기 위한 “자속”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속을 실행하신 분이다.

논평자는 이런 그의 사상을 키에르케고어의 사상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없이 계신 하나님”은 키에르케고어의 사상에서 일종의 역설로 설명될 수 있다. 그에게 “무(nothing)는 곧 전체”이고 “전체는 곧 무”이다. 영광은 곧 비천이고, 비천은 곧 영광이다. 파멸은 곧 승리고 승리는 곧 파멸이다. 이런 대립되는 쌍은 결국 변증법적인 과정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아=비아, 곧 신채호의 역사관 역시 아와 비아의 투쟁 가운데, 아와 비아의 일치를 추구한다. 이 역시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헤겔의 변증법과 키에르케고어의 변증법은 정반대의 운동이다. 방향이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유명모의 사상에는 방향이 누락되어 있다.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없이 있는”이거나 “있고 없는”이거나. 혹은 “비천이 영광”이거나 “영광이 비천”이거나. “무가 전체”이거나 “전체가 무”이거나. 이런 대립 쌍에서 “없이 있는” 하나님만 참이다. “비천이 영광”인 길만 참이다. “무가 전체”인 길만 참이다. 바로 이것이 도(道)이다. 동양적으로 이해하자면 득도(得道)하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혹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바랄 수 있는가? 이 길은 “있음”을 추구하는 길이다. 이것은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다. 이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길이다. 이 길은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이 일어나는 길이다. 곧, 자기 인식에서 사투를 건 “인정투쟁”이 일어나는 길이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저술한 후쿠야마는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의 결과, 상호인정단계로 접어든 역사의 끝은 민주주의로 이해했다. 곧, 세계의 역사적 운동은 인정투쟁의 결과다. 세상은 영광을 얻기 위해, 인기, 성공, 부를 얻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가 되는 길이 아니다. 이것은 “있음”을 추구하는 길이다.

그러나 방향은 중요하다. “없이 계신” 하나님만 참이다.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없음”은 말구유에서 시작된다. 말구유는 “비천,” “없음,” “무”의 상징이다. 이 운동은 헤겔의 역사적 운동 반대편에 선다. 따라서 이 길은 빅데이터, 시가 포착할 수 없는 길에 선

다. 이 길은 좁다. 빅데이터에서 예외로 잡힌다. 다시 말해, 종교의 융합은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유사한 길에 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가? 빅데이터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가? AI는 유사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가?

이 길은 고난의 행진이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영광, 명예, 인기, 성공, 부를 벗어 던질 수가 없다. 불교도 이런 무아의 경지가 있다. 유교도, 그 외 다른 종교 역시 이를 추구하는 종교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걸인 그런 길이 있는가? 유명모의 사상은 종교의 융합을 추구하고자 했는데, 이런 융합은 성공할 것인가?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이런 길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독특하고 유일한 고난이기 때문이다. 이 길은 인간이 흉내 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AI나 빅데이터가 찾을 수 없는 길이다. 따라서 한 마디로 말한다면, 유명모의 사상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독생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한 길이니까.

이런 점에서는 부자유친 역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동양적 부자유친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애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천의 길은 이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해도, 아무리 시험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적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일한 시험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이지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라고 주장했던 분이 버림을 받았다니! 이런 점에서 다시 버림이 곧 하나다. 그분을 따르는 누구나 이런 버림의 위험 가운데 선다. 세상이 그분을 버렸듯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다.

방향은 중요하다. 유명모의 사상은 방향이 생략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는 “불이(不二)”가 참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랑할수록 버림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를 멈췄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불이”이신 분이 분리되는 것.

포에르바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몰트만 역시 고난당하는 기독교를 강조한 바 있다. 포에르바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신은 이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뿐이다. 이런 점에서는 유교나 불교의 고통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키에르케고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독특하고 유일한 초인간적 고난이다. “신의 고난의 참여”라는 의미에서의 고난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없음,” “무”의 의미다. “없이 계신 하나님”의 의미이다. 이 길을 본받으라? 인간은 누구도 이 길을 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키에르케고어의 사상은 이 지점에서 “자숙”을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야고보서를 강조하는 이유도 “자유”를 강조하는 그의 사상 때문이다. 인간의 노력은 은혜에 반대되지 않는다. 노력은 무한한 은혜의 바다에 포함될 뿐이다. 아이가 유모차를 밀기 위해 시도한다. 그러나 아이의 힘으로는 밀 수 없다. 아이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그때 엄마는 아이 몰래 슬쩍 밀어준다. 유모차가 움직일 때, 아이는 기뻐한다. 다시 말해, 아이의 노력 없이 부모가 유모차를 밀 리 없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엄마의 힘 덕분임을 믿어야 한다. 아이의 아이큐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가 장성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속이 자속은 아니지만, 자속은 곧 대속이다. 이런 점에서 불가능한 모범 역시 우리의 모범이다. 이때 요구되는 기독교의 시험은 “겸손”이다.